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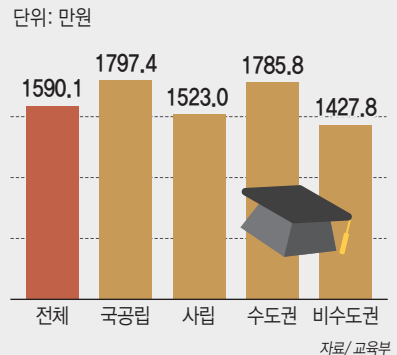
재정난 외치던 대학, 학생 장학금 줄고 적립금 늘어

2020년 8월 대학정보공시

학생 1인당 교육비 1.5% ↑
사립대학 적립금 1.3% 증가
건축기금 46%로 절반 수준

지난해 국내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으로 사립대·수도권대보다 국립대·비수도권대 증가폭이 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전국 4년제 일반대·교육대 196개교, 전문대 134개교다.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590만1000원으로 전년 1566만8000원보다 23만3000원(1.5%) 증가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에는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관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매입

2019년 대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



비 등이 포함된다. 국립대학은 1797만4000원으로 전년(1727만8000원)보다 69만6000원(4.0%) 증가했고, 사립대학은 1523만 원으로 전년(1514만6000원)보다 8만4000원(0.6%) 늘었다. 수도권대학은 1785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000원(1.0%), 비수도권대학은 1427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25만7000원(1.8%) 증가했다. 전체 장학금 규모는 감소했다. 지난해 일반대와 교육대학의 장학금은 4조 6384억원으로 전년(4조7469억원)보다

1085억원(-2.3%) 줄었다. 장학금 총액의 재원별로 국가장학금은 2조7099억원(58.4%), 교내 장학금 1조7590억원(37.9%), 사설 및 기타 1449억원(3.1%), 지방자치단체 245억원(0.6%) 순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다만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하고 있어 2018년 대비 407억원, 2017년 대비 948억원의 장학금 확충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연간 327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5만2000원(-1.6%) 감소했다. 대학 유형별 학생 1인당 장학금은 국립대학은 270만9000원, 사립대학은 344만5000원이었고, 수도권대학은 325만8000원, 비수도권대학은 328만4000원이었다. 지난해 2학과와 올해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는 45만9872명으로 전년보다 3236명(-0.7%) 감소했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자수는 19만1512명으로 6.6% 감소했지만,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 수는 26만8360명으로 4.0% 증가했다. 지난해 일반 사립대학 적립금은 7조 8817억원으로 전년(7조7834억원)보다 983억원(1.3%) 증가했다. 적립금 가운데 건축기금이 45.9%로 절반 가까이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특정목적기금(26.1%), 장학금(17.5%), 연구기금(9.4%), 퇴직기금(1.1%)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전문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035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0.02% 감소했고, 장학금 총액은 1조 4913억원(-1.8%),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연간 351만1000원(-2.3%)으로 각각 감소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전문대 학생 수는 3.3% 감소한 13만5831명이었다. 사립 전문대 123개교의 교비 적립금은 1.9% 증가한 2조4989억원, 이 가운데 건축기금이 70.2%(1조7539억원)로 가장 많았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부터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세종대 jpg 증명기술 국제표준 채택



세종대는 권오진 전자정보통신공학과 교수(사진) 연구팀이 개발한 'jpg 이미지'에 대한 원본증명용 기술이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됐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페이스북 뉴스에서 사용되는 가짜 사진, 타인에 대한 악의적 조작 사진 유포 행위 등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위변조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사진의 대부분은 jpg 파일 형태로 유통되는데 이번엔 개발된 기술로 위변조된 jpg 이미지들이 원본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연구팀은 디지털 시그니처 기술과 워터마크 기술을 동시에 jpg 이미지에 적용하는 것을 JPEG 국제표준화기구(ISO/ICE SC29 WG1, www.jpeg.org)에 제안해 JPEG Privacy & Security(ISO/IEC 19566-4)라는 이름의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 /이현진 기자

국방부 “해외파병 군인의 코로나 검사, 지자체가 할일”

최근 코로나검사 자비 논란 해명 “의무사항 아니다 보니 군병원서 지원”

국방부는 해외파병 군인의 아내가 자비로 코로나19 PCR검사 및 자가격리물품을 자비로 해결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방부의 입장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31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해외파병을 마치고 귀국한 군인의 격리해제 전 코로나19 PCR검사와 자가격리구호품 지원은 각자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한다”면서 “지난 20일 1차로 복귀한 동명부대 76명 전원은 지자체 방역물품을 모두 지급받았고, 식품키트는 6개 지자체에서만 지급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해외파병부대를 담당하는



레바논에서 유엔평화유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명부대 23진이 지난해 12월 9일 인천시 부평구 육군 국제평화지원단에서 파병 신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국제평화지원단(이하 국평단)의 관할 보건소 중 한곳인 인천시 계양구 보건소는 조금 다른 설명을 내어 놓았다.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에 앞서 30일 계양구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28일) 오후 국방부측에서 코로나19 격리해제 전 PCR 검사 협조요청을 받

은 것으로 안다”면서 “국방부가 2차 검사(격리해제 전 PCR검사) 예산이 없어 협조를 요구해 시료채취를 군 당국이 해오면 검사는 협조하는 것으로 이야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담당업무를 맡은 과장으로 부터 전달받은 내용이라면서 “현재 자

가격리 담당 공무원들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한 시기는 공교롭게도 본지가 단독으로 관련 보도한 때와 겹친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청원 내용이 사실이라는 질의에 대해 “관련부서가 확인하고 있다하니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통상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하게 입장을 밝히는 모습과 사뭇다른 모습이었다. 국방부는 “해외파병 군인들은 인천공항에서 1차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하루를 국평단에 대기한 후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뒤 각자 집으로 이동해 자가격리한다”면서 “각 지자체별로 격리해제 전 코로나19 PCR검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인근 군병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

고려대·한양대 기능성식품 계약학과 운영

기능성식품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석사학위 계약학과 두 곳이 9월 1일 신규 개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려대와 한양대를 기능성식품 관련 석사학위 계약학과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관역량, 교육수행여건, 운영계획 등을 평가해 두 대학을 선정했고, 고려대 세종캠퍼스 기능성식품학과, 한양대 서울캠퍼스 기능성식품학과를 신설, 신입생을 선발해 첫 학기를 시작한다. /한용수 기자

서울사이버대 ‘2020 SFSF’ 온라인 생방송

서울사이버대가 오는 9월 19시 ‘2020 SCU Family Summer Festival’ (이하 2020 SFSF)을 서울사이버대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방송으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본교 캠퍼스를 비롯해 전국 7개 지역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사이버대는 그동안 다양한 오프라인 축제와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병행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되자, 20대 총학생회에서는 학우를 위해 사이버대학 최초로 온라인 생방송 축제인 2020 SFSF를 준비해 유튜브를 통해 선보이게 됐다. /이현진 기자



고려대, 알츠하이머 진단 고감도 센서 개발

윤대성 바이오공학과 교수 연구팀 체액 한방울로 주요원인물질 검출 그래핀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이용

국내 연구진이 체액 한 방울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는 고감도 센서 개발에 성공했다. 고려대는 윤대성 바이오공학과 교수(사진) 연구팀과 황교선 경희대의 과대학 교수로 이뤄진 공동연구팀이 그래핀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를 이용해 혈액과 뇌척수액 내 존재하는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물질(아밀로이드 베타, 타우)을 펩토그램(femtogram, 10-15g) 수준까지 한번에 검출해낼 수



있는 고감도 나노 바이오센서를 개발했다고 지난날 31일 밝혔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체액의 생리학적 환경(산도 pH 7.4)에 따라서 서로 다른 표면 전하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 착안해 두 생체 물질이 구별되는 검출 신호를 내는 그래핀 기반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다중 검출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현진 기자 hnj@

성균관대,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 개소

생태계 구축사업 5년간 490억 투입 성균관대는 양자정보과학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 개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센터장으로는 정연욱 성균관대 성균나노과학기술원 교수가 선임됐다.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센터장 공모 절차를 통해 정연욱 교수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소속기관인 성균관대 내에 센터를 설치하게 됐다. 본 사업은 연구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약 490억원이 투입된다. 성균관대는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 개소식 /성균관대